

“더 빠르고, 더 신선하게”... 대형마트까지 ‘직송’ 경쟁 가세

배송 다각화로 진화하는 유통 배민, 대형마트와 비식품 직송 강화 쿠팡, 산지 직송 신선식품 시장 공략 롯데쇼핑, AI 활용 배송 과정 자동화

e커머스 플랫폼이 유통업계와 협력해 ‘직접 배송(직송)’ 경쟁을 본격화하고, 배달 상품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협력해 예약형 ‘마트 직송’ 서비스를 강화하며 식품뿐만 아니라 비식품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배달 식품의 신선도를 높이는 ‘산지 직송’ 방식을 내세우고, 기존 공산품 중심에서 신선 식품으로 배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민족의 ‘장보기 쇼핑’ 서비스에 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입점했다.

기존에는 이마트24, CU,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지난달 이마트에 이어 이달 2일 홈플러스가 합류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대형마트 상품도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직접 배송 준비하고 있는 물류 센터 가상 이미지.

배송이 가능해졌다.

배달의민족이 이번 대형마트와의 협력을 통해 내세운 것은 ‘마트 직송’ 서비스다. 마트 직송 서비스는 대형마트 매장의 상품을 고객이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집까지 배송하는 맞춤형 예약배송이 특징이다.

마트 직송 서비스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배달 상품의 다각화다. 기존 대형마트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품 위주의 상품을 배송했지만, 이번 배달의민족 플랫폼에 입점하면서 리빙, 스포츠용품, 가전 등 비식품 위주로 배달 상품 품목을 확대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배달의민족 입점을 통해 대형마트에서 구매 가능한 식품뿐 아니라 리빙, 스포츠용품, 가전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의민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마트 직송으로 배송되는 상품은 사륜차를 이용해 배송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큰 상품도 문제없이 배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도 빠르게 직접 배송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자제품, 가전 등 공산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 ‘산지 직송’을 통해 신선식품과 농수산물 배송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산지 직송 서비스는 대한민국 최남단 진도와 완도, 서해 및 동해안 등 전국 산지에서 잡은 수산물을 주문 일 기준, 다음 날 아침까지 고객 집 앞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쿠팡은 산지 직송 규모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000톤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전라도 해남, 부산, 마산, 충청남도 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식품 공급 판로를 확보하고 북·오징어·새우 등 기존 3~4가지 어종에서 꽃게·고등어·갈치·주꾸미 등 30여 가지로 산지에서 직송 가능한 식품 품목을 확대했다.

여기에 롯데쇼핑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내세우며 온라인 식품류 배송 시장에 뛰어든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온라인 식료품 배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와 계약을 맺고 총 6개의 자동화 물류센터 구축을 오는 2030년까지 완공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의 자동화 물류센터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해 주문에서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진다는 게 특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빠르고 신선하게 상품을 전달하려는 e커머스 중심의 직송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배송 대상 상품이 다각화되는 것 역시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한우부터 와인까지... 내년 설 선물 미리 준비하세요”

홈플러스, 선물세트 사전예약 시작 10만원대 이상 고가 상품 27% 확대

홈플러스가 이달 1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5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사전예약으로 제공되는 이번 설 선물세트는 실속형부터 고급형 상품까지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됐다. 특히 한우와 주류 선물세트 품목을 강화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가성비 좋은 2만~6만원대 중·저가 선물세트 상품 수를 전년 대비 약 10% 확대했으며, 중·고가인 6만~9만원대도 24%, 10만원대 이상 상품도



홈플러스 2025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앞두고 브랜드 모델들이 관련 상품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홈플러스

약 27% 늘렸다. 대표적으로 정육 선물 세트는 한우부터 수입육, 양념육까지 다양한 구성과 가격대로 마련했다. ‘농

협안심한우 1등급 갈비 냉장 세트’와 ‘농협안심한우 정육갈비 혼합세트’ 등이 준비됐다. 또 등심, 안심, 채끝 등으

로 구성된 최상위 등급 한우 ‘농협안심 한우 저탄소 1++No.9등급 프리미엄 세트’도 30% 할인한 가격대로 선보인다.

과일 선물세트의 경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유명산지 과일 등 고품질 선물세트 상품을 확대했다. 특히 ‘GAP 사과 세트’와 ‘GAP 배 세트’와 더불어 유명 산지 선물 세트인 ‘진장 사과·안성 배 세트’, ‘산지기획 사과·배 혼합세트’가 마련됐다.

주류 상품 구성도 강화했다. 와인의 경우 ‘1865 프렐루전’, ‘앙드레 끌루에 상파뉴 실버 브뤼+브뤼 그랑 리저브’ 상품이 준비됐다. 이 외에도 ‘문배술명작’, ‘와일드터키 8년’ 등의 주류 상품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GS리테일-안테나 컬래버 간편식 선보여
규현 떡볶이 ‘조떡규떡’ 출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안테나’와 손잡고 차별화 협업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8일 밝혔다.

GS25는 ‘안테나’ 소속 아티스트의 두터운 국내외 팬덤을 신규 고객으로 전이시키고 ‘안테나’는 GS25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통해 팬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목적 등이 이번 협업 추진의 주요 배경이 됐다. 양사는 첫 협업 활동으로 안테나 소속 가수 규현과 공동 개발한 간편식 ‘조떡규떡 계란떡볶이’, ‘조떡규떡 라볶이’ 2종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풀무원-전북도 ‘김 육상양식 심포지엄’

풀무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주 소재 라한호텔에서 김 육상양식 기술의 지속 가능성과 기술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김 양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김 육상양식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후 변화와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과 탄소 저감 연구 분야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김 육상양식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공주대학교와 풀무원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중·일 전문가들은 6일에 진행된 김 육상양식 견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신원선 기자

쓱닷컴 비즈 전문관, 연말 프로모션 시작 신세계百貨, ‘헬로 뉴 산타’ 연말 캠페인

SSG닷컴이 올 한 해 ‘비즈 전문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인기 상품을 공개하고, 송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비즈 전문관’은 기업 고객을 위한 전문 소싱몰로, 기업 전용 위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SSG닷컴 공식 웹 사이트 내 마련됐다.

SSG닷컴에 따르면 올 한 해 쓱닷컴 비즈전문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커피믹스다. 초콜릿, 과자, 쿠키 등 열량이 높고 커피에 곁들이기 좋은 탕비실 간식용 가공식품도 인기 순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과일, 한우 세트는 물론 스낵, 잠치 세트까지 거대처선

물용 기획 상품도 매출 상위권에 포함됐다.

일상용품 중에서 물티슈, A4 용지, 스테이플러 칩 등 일회 사무용품 판매량이 높은 매출 순위를 보였다는 게 SSG닷컴 측 설명이다.

SSG닷컴은 오는 15일까지 비즈 전문관 송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먼저 첫 구매 혹은 최근 3개월 이내 구매내역이 없는 사업자 회원에 대상으로 7만원 이상 구매 시 1만5000원을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주문 금액대에 따라 최대 10% 할인되는 6종 할인 쿠폰팩도 지급한다. /안재선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연말 캠페인 ‘헬로 뉴 산타’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여자 아이돌 카리나를 중심으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캠페인 제작에는 아이돌 카리나와 함께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참여했다. ‘돌고래 유괴단’은 광고,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룹이다.

앞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신세계백화점 공식 사회관계 서비스망(SNS) 계정에는 산타의 포토



‘헬로 뉴 산타’ 캠페인 관련 포스터. /신세계백화점

부스 체험기, 지하철 탑승기 등 산타 이야기를 담은 게시물이 게재됐다. 지난 1일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산타를 대신해 선물 배달에 나선 카리나의 콘텐츠를 공개했다. /안재선 기자